‘버려진 돌’이 사명인 사람

(시편 118:1~29)

22.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24.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버려진 돌’이 사명인 사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버려진 돌’이 사명인 사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들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뒤로 연결되어 맥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를 지탱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또한 아치형의 건축물을 만들 때에 정수리부분을 지탱하기 위해서 놓는 돌을 머릿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건물의 모양이 어떠하든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중심이 되는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다고 합니다. 건축자들은 머릿속에 구상한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모으며 건축을 해나갑니다. 그러던 중에 한 돌을 보니 자신이 구상한 그림에 전혀 쓸모가 없어보였기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중심으로 집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신 이유는 로마 통치하에 있던 유대사회로부터 전혀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 사회로 편입되지 못하고 버려지신 것입니다. 인간 세상이라는 건축물에는 전혀 용도가 없어서 버려진 예수님이라는 돌을 하나님께서는 머릿돌로 삼으셔서 새로운 선민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유의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으로 최종적으로는 세상의 심판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본문 22절의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 사회로부터 멸시천대를 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새로운 역사의 중심점이 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 사회로부터 버려진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 유명한 구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돌은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돌이 건축자들을 버렸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단 하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버려지신 돌이 실은 건축자가 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심이었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 세상이 못 받아들이고 버리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시고도 버려지는 입장을 고수하셨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면 예수님께 숨겨진 적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버려지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돌이 되셨다는 것을 오늘 시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버려지심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예수님의 버려지심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버려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복지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인간 세상이 버릴 수밖에 없는 요소를 관철하셨습니다. 돌려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세상을 버리셨기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인간 세상은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려진 돌의 사명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를 염두에 둘 때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이 버려진 돌의 사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모퉁이 돌 되심에만 치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통치자이자 심판자로서 세상에 오시게 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경우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연합하게 되는 것을 두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것에 비유하며 예수님의 모퉁이 돌 되심을 이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버려진 돌 되심에 대해 우리들의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편입되지 못하시고 밖으로 내몰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우리도 인간 세상으로 편입을 시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세상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버림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인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을 참고로 해봅니다.

본문의 5~7절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까 /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감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이고 행동이나 생각은 모두 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수정이 가해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어지는 8~9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한 입장이 되고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간 세상의 사람을 신뢰하는 대신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편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사장님의 신뢰를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 편입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기쁨과 만족을 직장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직장에서 버려진 돌로서 취급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일부러 버려진 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버려진 돌의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걸출한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하나 같이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존의 인간이 만든 판에서 버려졌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등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이 또한 기존 판에서 버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떠났든지 수동적으로 버려졌든지 기존의 판에서 밀려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간 세상에서 새 판을 짜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기보다는 건축자에게 버림받아야만 모퉁이 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건축자를 버려야만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버려진 돌 신세가 되었을 때에 복의 근원이 되었고, 형들에게 이방 땅 애굽으로 버려진 요셉은 천하의 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합니다. 또한 애굽의 왕실로부터 버려진 모세가 이스라엘을 노예상태에서 구해냈습니다. 사울 왕의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로부터 버려진 다윗이 이스라엘을 전성기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 의도적이고 계산적으로 인간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기를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기 이전에 버려진 돌이 되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유의 통치자 되심에만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버려진 돌이 되셨음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는 골고다 언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빌라도에게 재판과 사형선고를 언도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인간 사회가 예수님을 버리는 장면입니다. '예수! 당신은 우리 인간이 짜 놓은 판 안에서는 용납될 자리가 없다. 우리는 당신을 용납할 의도도 없으며 당신은 용납 될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것의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바깥의 골고다 언덕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우리의 믿음에도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직장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직장 안에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신앙이 없는 동료들과 상사들을 신뢰하여 그들 속으로 편입되고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정받아 승진하고 월급 많이 받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얼핏 너무나도 당연한 직장인으로서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직장이라는 예루살렘에서 마음이 버려져서 골고다로 올라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몸은 직장에 있지만 마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최우선적인 현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장님보다 더 우선적인 현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직장에 대해 죽는 것이고, 직장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려진 돌이 되심에는 의도성과 적극성이 숨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버려진 돌 속에 숨어있는 적극성에 올라타는 것이며, 직장에서 버려진 자로서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죽자고 노력해서 들어간 직장에 편입되지 않고 버려진 자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 순간도 예외 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편입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에서 버려지심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편입시키는 길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편입되지 않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말 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버림받은 자가 되시기를 자처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 하셨듯이 하나님께 편입

되기 위하여 세상에 대해서는 버림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신입사원이라면 직장에는 층층시하 고관들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뢰를 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처럼 직장에 대해 죽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은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신입사원 주제에 감히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회사가 사장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삼성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건희 씨나 이재용 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인간들끼리 짜놓은 판에서 소유를 주장하고 있을 뿐 실상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세상에서 버려지심을 의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직장에서 버려질 수 있습니다. 직장이 아닌 하늘에서만 기쁨이 주어질 수 있다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입사원을 통해서 회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회사는 사장님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사에 대해 가지신 계획을 신입사원을 모퉁이 돌로 삼아 전개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버려진 돌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신비한 일입니다. 본문 23절에서도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됨을 두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노래한 것과 같습니다.
회사의 임원들이 전략을 짜고 수행하려고 할지라도 결국 회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모퉁이 돌이 된 신입사원 한 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새 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무슨 직분이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듣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에 오르신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라면 대한민국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겠다는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가계신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기쁨과 만족은 찾아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버려진 돌이 되는 것입니다. 버려진 돌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적극성을 받아들일 때에 나도 버려진 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일어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자도 아니고 유력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 버려진 돌이 된 우리들을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운 판으로 짜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말씀은 우리 수준에 맞춰지는 것도 아니며 전하는 사람의 기분에 맞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세계관이 영적인 사실에 맞추어져 가야 합니다.

모퉁이 돌 되신 주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실생활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진 돌 되심에 대한 믿음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판도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골고다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버려진 돌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얻을 기쁨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신 바가 이와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채워짐입니다. 기쁨으로 귀결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으로 인해 마음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신뢰를 받으므로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기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여러분을 모퉁이 돌로 삼아 가족이라는 새 판을 짜실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과 은총이 충만한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버려지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적극성이 우리의 적극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는 곳마다 인간 세상이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성 밖 골고다로 나가서 주님과 함께 버림받은 자로 여기는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의 모퉁이 돌이 되어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